

“등록문화재 평가 기준 바꿔야”

대각사상연구원 ‘근대 고승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워크숍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해 지정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불교계가 모호한 등록문화재 기준을 정립해 등록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대각사상연구원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6월 26일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근대 고승 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에 대한 관련학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2001년 시행된 제도로 50년 이상된 보호 가치가 충분한 유물을 보존하기 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재보호법이다. 현재까지 종교 관련 등록문화재 59건 중 개신교 30건, 가톨릭 24건, 유교 및 토속신앙 17건으로 불교의 경우 9건에 불과하다.

“불교계, 등록문화재에 관심 인식 부족”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광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몇 백년 이상의 국보나 보물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50년 이상만 돼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등록문화재 지정에 큰 열의를 보이는 이웃종교에 비해 인식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불사 등에 법적인 장애요소가 될까와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등록문화재를 추진하려 하여도 학술적 자료가 축적되지 않고, 불사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의 ‘만일참선결사화 만일선회 방향록’과 ‘고향 흥국사 대방’을 예로 들며 신청절차를 소개했다.

보광 스님은 “불교계에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근현대 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등록문화재가 수 백 년 뒤엔 국보나 보물이 될 수 있다. 역으로 이에 대해 소홀할 시 근현대 시기가 불교문화의 공백기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불교문화재 등록의 평가기준 미흡”

이와 함께 정작 근현대 불교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해도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흡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인용민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실 팀장은 “문화재청이 근현대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근대성’에 치우쳐 그 문화재의 ‘종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웃종교는 서양양식 등으로 근대성에 높은 평가를 받지만 불교는 그렇지 못하다. 종교문화재로서의 분야별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팀장은 또 “동시기가 같은 작가에 의해 조성된 불교유물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며 “각 지역에서도 문화재 수준과 지정된 문화재의 수량이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인 팀장은 2013년 진행한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목록화 조사 연구’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에 있어서는 지정문화재, 지원 및 활용에 있어서는 등록문화재라는 양대 축으로 불교계가 문화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관리 등을 공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팀장은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에서 전국사찰의 1만 1309건의 근대문화재를 조사해 등록문화재로 81건 729점을 추천한 바 있다.



보광 스님이 등록문화재 예시로 든 남양주 흥국사 대방.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염불 수행 공간으로 전통방식을 벗어난 근대건축의 성립을 보여준다.

인 팀장은 “보존의 효율성은 지방문화재가, 국가의 지원과 유물의 활용에 있어 등록문화재가 훨씬 유리하다”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나중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등록문화재 지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 팀장은 “근대 조성된 불교유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목록화 조사와 종합적인 정밀학술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과제도 제시했다.

용성·윤허 스님 근현대 자료 공개

김광성 동국대 연구교수는 이날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한 용성 스님 관련 역경, 사상서, 전적 및 유품, 잡지, 신문 등 총 277건의 자료의 목록도 공개했다.

김 교수는 “이들 자료는 용성 스님의 생애, 사상, 대각교운동, 일제 치하 불교의 동향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근대기 자료들이 근대불교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귀중한 단서들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광 스님 (왼쪽)과 인용민 (오른쪽)

남양주 봉선사 지한 스님은 역경불사에 앞장 선 윤허 스님이 21년간 빠짐없이 쓴 ‘탁상일기’를 소개했다.

지한 스님은 “일기를 통해 윤허 스님이 진력을 다한 역경사업의 역사적 맥락, 관련 인물과 사건, 문헌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역경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며 근대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지한 스님은 “이웃종교계의 성역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해서”라며 “뒤늦었지만 불교계도 등록문화재에 관심 갖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삼국에 미친 영향은?

불교사회연구소 7월 2일 ‘고대 불교와 국가’ 학술세미나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7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고대 불교와 국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조경철 연세대 박사의 ‘한국 고대의 불교와 정치’ △남무희 국민대 박사의 ‘고대 불교와 왕권-신라 중고시대와 중대를 중심으로’ △박광연 동국대 박사의 ‘신라시대 불교와 왕권’ 등이 발표된다.

이날 조경철 박사는 고구려·백제·신

라의 불교수용과 국난 타개,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주도권 경쟁, 백제와 신라의 정통성 확립과 신화의 재편, 백제 불신(佛神)의 도읍 창건, 신라의 황룡사 창건 등을 발표하며 토론은 조우연 박사(인하대 한국학연구소)가 나선다.

한편, 2011년부터 호국불교 재조명을 주제로 사업을 진행해 온 불교사회연구소는 2014년부터 ‘불교와 국가’를 주제로 각 시대별·국가별 불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 그리고 불교학’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7월 21~22일 가야산 심원사에서 ‘불교, 그리고 불교학’을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불교의 학문적 연구와 영역을 논의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권오민 경상대 교수와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함께 한국불교의 현실과 불교학의 당면과제를 논의한다.

토론자로선 권탄준 교수(금강대, 한국

불교학회), 김영진 교수(동국대), 배경이(동국대)씨가 나선다.

워크숍 두번째날에는 법사사지와 해인사, 청량사 답사가 진행된다.

조은수 회장은 “최근 불교학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불교학 분야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 불교학의 장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수리현장 ‘상시 점검’ 실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 품질을 향상하고, 수리현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점검단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격 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문화재 수리현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된 민간점검단은 안전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문화재위원,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자 등이 모두 참여한다. 점검단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불법 자격 대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은 6월 말부터 연중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점검을 통해 발견된 가벼

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에서 바로잡고, 부실시공 등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사에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문화재 수리현장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 센터’는 2014년 초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이던 ‘자격증 불법대여 등 신고 전화․온라인 사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해 신고 대상에 부실수리와 감리를 포함해 6월부터 운영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종교,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 매개 역할 해야”

유기쁨 연구원, ‘종교와 공공성’ 심포지엄서 주장

종교문화비평학회(회장 장석만)는 6월 21일 만해NGO교육센터 ‘2014년도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종교와 공공성’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종교 안팎의 공공성을 물음으로써 한국사회의 공공성 문제에 내포된 근원적인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유기쁨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각종 사회현안, 특히 생태 사안에 대해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야 한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여러 현안을 국가에만 맡겨둘 것이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을 찾는 데 종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가 생태운동 등에서 시민단체와 정부의 중간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사회적 약자는 이전보다 더욱 박탈당하고 소외된다”며 “문제는 그 책임이 개인에 있다

는 것을 당연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개인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요청되는 집단적 보호망 가운데 종교는 빼놓을 수 없는 장치”라며 “종교는 생태운동의 현장에서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특히 종교는 폭력적 대치 국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사안으로 시민들이 모인 현장마다 종교계의 참여가 요청되는 데 이는 생태 공공성이 종교계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생태 운동가들의 저항에 대해 종교계가 일차적으로 보호자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저항체력을 해체하려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한다는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유 연구원은 종교의 대항화로 생태 공공성을 헤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 제38호 원고 모집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선학> 제38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분야는 선불교 관계의 수행, 사상, 역사, 문학, 어학, 문화, 예술 방면이며 원고미감은 오는 7월12일까지.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150매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seonstudy.org) 논문투고 안내와

규정을 참고하면 되며, 한국선학회 이메일(seonstudy@naver.com)로 한글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등을 적어 논문과 함께 보내면 된다.

한국선학 38호는 8월 31일 발간된다. 한국선학회는 “엄정한 절차로 옥고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며 연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心靈治療 (심령치료)

당신은 심령치료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노오”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석학이신 이희승 박사 편저 국어대사전에서 심령요법에 관해 해설되어 있습니다.

또 심령학, 심령현상, 심령술에 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요법은 비 종교 행위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 심령연구에 관한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영국 캠브리지대학 몇몇 대학에는 심령 연구생 제도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에는 심령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양에는 매우 뒤져 있을 뿐, 그나마 일본에서는 “일본심령과학협회”라는 기관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에 지부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초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 심령치료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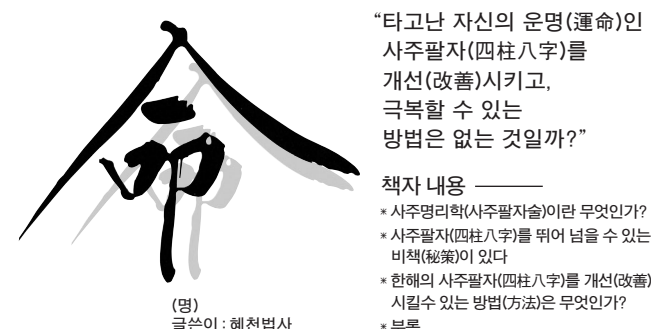
- ① 재령에 의한 방법
- ② 인연 해제에 의한 방법
- ③ 영계 의사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령치료에는 접촉치료와 손바닥 치료가 있고 저마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약이나 물리적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심령술, 심령학, 심령현상 등 복잡한 내용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심령요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령치료는 특수 능력을 가진 영모(靈媒), 영능자(靈能者)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의학 등 방법으로 못 고치는 분은 심령치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많은 분을 심령요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심령 연구발전을 위하여 학교선생님, 의사, 학자 등 사회 각계의 관심있는 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靑岩禪院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2동 602-4호 전화 02)992-8624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이 어떤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글쓴이 : 혜전법사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글쓴이 : 혜전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